

btm 주요프로 진행자

퀴즈특급 **당신의취미** **문화라인** **강변정당**
이정부·김나운 **오미영** **박범훈·고은희** **민용태**
김병조의 스타쇼 **김병조** **나의삶 나의불교** **이계진**

영상포교시대를 연 불교텔레비전이 1일 개국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전 10시 삼귀의와 애국가로 방송의 문을 열고 10분간 btv 뉴스가 방송된다. 매일 방송되는 이 뉴스시간에는 교계내외의 소식과 남새를 알려준다. 이어 방송되는 '날마다 좋은 날' 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

는 불우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그들에게 지비 손길을 보낼 불자들을 이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김병조씨와 만나는 '김병조 스타쇼'는 종합버라이어티쇼이다. 김병조씨는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목요일의 'TV 신영

하는 '강변정당'은 토요일에 방송된다. 교계의 중진인사, 예술인 등을 초청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은 민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출연자의 특색한 삶이 뛰어나는 신선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0분간 방송되는 '나의삶 나의불교'는 불신통한 아나



영화실서 신행현장까지 화면에
진행 맡아 불교 공부... 좋은 방송 '자신'

지 고정적으로 안방을 찾아가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종합신행프로그램이다. 월요일 오전 11시10분부터 12시까지 '한국의 명찰'이 화요일에는 '자비의 천수천안'이 방송된다. '한국의 명찰'은 국내 전통사찰을 안방에서 가행하는 시간으로 이미 1백여 사찰이 영상에 담겨 안방배달을 기다리고 있다. '자비의...

삼살'은 이영숙씨가 진행한다. 금요일의 '퀴즈특급'은 중견 아나운서 이정부씨와 인기탤런트 김나운씨가 맡았다. 불교상식을 퀴즈로 푸는 이 프로그램을 맡은 이씨와 김씨는 "우리도 이제 불교공부를 해야겠다"며 마이크 앞에 앉기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고려대 민용태 교수가 진행

은서 이계진씨가 진행한다. 제계, 정계, 화계 등 각계의 유력인사들이 풀어내는 인생이야기들은 담담한 이씨의 화술로 한층 돋보일 것이라 방송관계자의 기대이다. 이씨는 "불교TV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생활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에 방송될 '당신의 취미'는 좋은 취미생활과 여가활

용을 오미영씨가 안내하는 시간. 수요일의 '신행32'는 불교계 현안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이며 목요일의 '건강여우'는 사찰의 건강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박범훈 교수와 고은희 아나운서가 금요일에 진행하는 '문화라인'은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계 전반의 소식과 풍경을 소개하는 시간. 토요일의 '영화실 탐방'은

교계대덕님을 찾아가는 시간이며 월~토요일 오후 2시 55분부터 3시까지 방송되는 '길에서 길을 묻는다'는 경정숙 생활의 귀감이 될 명언들을 듣는 5분 명상시간이다. 불교TV는 매주 일요일 한주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종일 재방송, 바쁜 직장인들을 화면앞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 광주방송 1일 개국

특집프로 다채
 FM 89.7MHz, 3w 출력의 불교광주방송이 3월1일 개국.호남 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한 리포터팀과 호남불교역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코너로 부산·서울·광주불자들의 신심자랑 등을 펼친다. 남도 불자가 발원하는 정법포교(1일 오후 9시5분~10시)

는 불교문화의 전통 맥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의 포교원력은 무엇이고 현대 한국을 이끌어가 불교도자들의 결의와 기대감을 모아보는 시간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학계, 교계, 신행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여 정법포교의 원력과 다짐을 전국과 불자들이 함께 나누

는 자리로 마련한다. "울랄! 89.7MHz, 축하합니다"(1일 오전 10시30분~11시)도 광주및 전라도지방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불교광주방송개국을 축하하는 김홍국씨를 비롯한 불자연예인들의 축하메세지와 축하퍼레이드가 소개된다. '개국 축하공연 실황'(5일 오후 12시20분~14시)은 2월 26일 광주영주중체육관에서 펼쳐진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개국축하공연실황이 녹음프로그램 방송된다.

어머니 합창단 창단 불교방송, 108명 구성
 불교방송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어머니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1백8명으로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의 단장에 김창영(불교방송 영입국장)씨가 위촉되고 지휘자에 김동환(중앙대)교수, 총무에 정순자씨가 임명됐다. 이날 창단식에는 불교방송 임원과 각 종단 간부님들 2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 TV 주간기본 편성

분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00	Sign on 삼귀의 애국가						10:00
10:10	Btv 뉴스						TV합의
11:00	생방송 날마다 좋은날!						btv 생사(생)
11:30	한국의 명찰	자비의 천수천안	김병조 스타쇼	TV 신행 상담	퀴즈 특급! 이 귀오?	강변 정당	11:30 불자매결
12:00	할기쉬운 교리강좌						12:00
12:30	우리들의 찬불가						한국의 명찰
13:00	기획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드라마 <상정법사현장>					13:00
13:30	영상 다크바나						김병조 스타쇼
14:00	나의삶 나의 불교	당신의 취미	추천 32	건강 여우	문화 라인	영화실 탐방	14:00
14:30	우리들의 찬불가						14:30
14:40	재미있는 경정공부						영상 다크바나
15:00	길에서 길을 묻는다						14:40
15:30	사용서원, 애국가 Sign off	어기에 숨은 꽃 문화 라인(생)					15:30
16:00	Sign on 삼귀의, 애국가						16:00
16:30	저녁 예불						16:30
17:00	btv 뉴스						17:00
18:00	날마다 좋은날! (재)						18:00
18:15	한국의 명찰 (재)						18:15
18:30	자비의 천수천안 (재)	btv 스타쇼 (재)	TV 신행 상담 (재)	퀴즈 특급! 이 귀오? (재)	강변 정당 (재)	18:30	
19:00	할기쉬운 교리강좌 (재)						19:00
19:30	기획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재)	드라마 <상정법사현장> (재)					19:30
20:00	나의삶 나의 불교 (재)	당신의 취미 (재)	추천 32 (재)	건강 여우 (재)	문화 라인 (재)	영화실 탐방 (재)	20:00
20:30	우리들의 찬불가						20:30
21:00	재미있는 경정공부						21:00
21:10	길에서 길을 묻는다						21:10
22:00	사용서원, 애국가 <주간 총 4560분 방송>						22:00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80권본 화엄경의 완역판!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사관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본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개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작 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관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관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 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개문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일보 —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한 한글화엄경!

李智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總長, 現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 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知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한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奇揆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한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사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계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재승
 (농협) 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우체국) 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협은행) 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화 : (02)732-2403~4, 722-7679
 팩스 : (02)739-7565

지방취급서점 : 부산 : 고려불교예술회관(807-6842) 삼정원(464-2696) 경공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폰 011-572-3007) 광주 : 불일서점(232-7542) 불교전서점(647-7393) 영광도서(816-9500) 부산불교문화사(466-3884) 대전 : 보문서점(257-0161)